

베드로의 신앙고백

■ 마태복음 16장 15~20절

■ 28(통28), 264(통197)

■ 2017년 8월 20일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에 대한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진리를 오늘 우리도 깨달아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칭찬 받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처럼 되시고, 천국 열쇠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말씀입니다(15-16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13절).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14절).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15절).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의 제자, 당신이 택한 백성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깨닫고, 믿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바로 아는 자가 참된 제자의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먹고 마실 것을 채워주시고, 로마 정권을 이길 만 한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을 떠나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16절). 그리스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직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첫째,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과 같아서 그 말씀을 열어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곧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골1:26~27). 예수님은 이 비밀을 알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물과 피를 쏟으면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흠 없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흠 없는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담의 원죄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흠이 없는 참 사람으로서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친히 제사장이 되시고 흠 없는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만 하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죄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왕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은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사망에 거하고 마귀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신 말씀입니다(17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17절a).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신 이유는 그리스도와 진리를 바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깨달은 자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심령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그것은 없어지지 않고 내 영이 자라게 되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17절b). 하나님의 진리와 신령한 것들은 성령께서 가르쳐주시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지만 내용이 생각나지 않아 지혜자들에게 꿈이 무엇인지 맞히고, 해석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꿈을 깨닫고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요나, 시몬아.’ 라고 하셨는데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아버지의 이름을 말한 이유는 진리를 깨닫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신령한 진리를 사모하시고 진리를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권세 있는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18-20절).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18절).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순종하면 반석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 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았으면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나 환난이 올 때에 깨달은 말씀을 알면서도 믿지 못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 때에 그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되고 반석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깨달은 진리를 끝까지 붙들어서 풀무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뜻은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해주셨습니다(19절a). 천국열쇠는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열쇠가 있어야만 하늘 문이 열리고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이 열쇠를 주셔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19절b). 이것은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순종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면 하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서도 풀리고, 하늘 문도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맺 음 말

그러므로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바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깨달으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진리를 순종하면 우리를 반석과 같이 견고하게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천국열쇠를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 공과 내용

1. 그리스도라는 뜻과 3중직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15~16절).
2.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 받은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17절).
3. 권세 있는 교회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18~20절).